

국내 1호 제주영리병원 재판 시작

녹지국제병원 “외국인 한적·개원허가 취소 부당” 제주도 상대 소송 제기… 1년여만에 오늘 첫 재판 도 “조건부 개설 허가 법적 문제 없고 녹지 책임”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상대로 내건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 등’에 대한 법적 시비를 가리는 재판이 1년 2개월여만에 시작된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지난해 2월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청구’ 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

소 소송’ 등에 대한 첫 변론을 21일 오전 10시40분 30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2개월여 만에 열리는 첫 재판으로, 녹지 측은 재판이 지연되자 지난해 10월에는 법원에 변론 기일을 잡아달라는 취지의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당초 법원은 4월 8일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법정이 2주간 휴정하

자 변론 기일을 21일로 늦췄다.

현재 녹지 측은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하며 ‘진료대상자를 내국인은 제외하고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할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녹지 측은 제주도가 지난해 4월 17일 법정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개원 허가를 취소한 것도 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조건부 개설 허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고, 개원

허가 취소 책임도 법정 기한을 넘겼던 녹지 측에게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첫 재판이 열린다는 소식에 시민단체는 영리병원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1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같은날 오전 11시 제주 법원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병원 철퇴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778억원이 투입된 녹지국제병원은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 8002㎡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2017년 7월 완공됐다. 이후 제주도와 갈등 속에 개원 허가가 취소되면서 현재 병원은 텅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 이상민기자

경찰 ‘비접촉식 감지기’ 활용 음주단속

“선별단속 허점 노려 음주운전 느는 추세”

경찰청은 20일부터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운전 단속을 시범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시범 기간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이같은 방식의 음주단속을 제주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고안됐다. 이 감지기는 운전자 얼굴로부터 약 30cm 떨어진 곳에서 약 5초에 걸쳐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 숨을 마셨는지를 판별한다. 지지대에 부착된 상태에서 차량 창문 너머에 있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게 설계됐다. 음주 사실이 감지되면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이 나온다.

경찰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28일부터 특정 지점을 지나는 모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일제 검문식 대신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만 선별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선별단속 허점을 틈탄 음주운전이 늘자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기자 hasm@halla.com

아동음란물 유포 30대 벌금 500만원

아동음란물 수백개를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퍼뜨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허씨는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등 600여개를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의 수가 비교적 많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halla.com

제주적십자사 36년 된 사옥 이전 추진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7일 제주적십자사 사옥 이전 추진위원회(위원장 고봉규)를 구성하고 위촉장 수여 및 제1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옥 이전 추진위원회는 법률, 부동산, 건축 등 관련 전문가 7인으로 구성돼 토지매입에서 설계, 건축시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심의·의결하게 된다. 제주적십자사는 자연적·사회적 재난에 효과적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를 집중하고 RCY, 안전교육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 전개를 위해 사옥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적십자사는 1984년부터 용담1동 소재 현 사옥으로 제주혈액원과 함께 이전했으나 2007년 제주혈액원만 도남동으로 이전한 상태다.

고봉규 추진위원장은 “제주적십자사는 오랫동안 소외된 이웃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도민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옥 이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7월부터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7월부터 모든 장애인이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8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영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16시

간의 맞춤형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현재는 1~4급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7월부터는 기존의 5~6급 경증 장애인도 무료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5~6급의 경증 장애인은 그동안 운전면허를 따려면 약 60만원을 들여 운전학원에 등록해야 했던만큼 무료교육으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상민기자

검정고시 5월 23일로 추가연기

2020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가 또 다시 연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5월 9일로 한 차례 연기된 검정고시 시험일을 같은달 23일로 2주 더 연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을 고려한 조치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알림마당-검정고시’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험 응시자에겐 문자메시지를 통한 개별 안내도 이뤄진다. 김지은기자



김녕해수욕장에서 ‘찰칵’ 20일 제주시 김녕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민기자

국내 첫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문연다

서귀포시 남원읍에 6월 예정… 정원 48명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 운영 대행기관 모집

오는 6월 서귀포시 남원읍에 국내 첫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이 개원한다.

서귀포시는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시행에 따라 치매노인에 대한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남원읍 남원리에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이 문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요양시설은 6699㎡ 부지에, 연면적 1741㎡(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정원은

48명(치매전담실 4개)이다.

시설에는 일반 노인요양원과 달리 장기요양등급 2-5등급을 받은 어르신 중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어르신들이 입소 가능하다.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 요양보호사와 프로그램 관리자가 배치돼 현실인식훈련, 운동요법, 가족교육과 가족 참여 프로그램, 인지자극활동, 음악활동 등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개원에 앞서 시는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운영 대행기관을 이달 28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비영리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경험이 풍부한 기관이다. 접수

는 공모기간(오전 9~오후 6시)에 노인장애인(760-2401-2402)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시는 대행기관을 수탁기관 선정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후 대행사업 협약과 준비를 거쳐 6월 말 개원할 예정이다. 또 시는 앞으로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여유 부지에 치매노인 대상 주간보호시설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작년 12월 말 기준 서귀포시 노인 인구 3만3707명 중 치매환자수는 3809명으로 11.3%의 치매병률을 보이며, 전국평균(10.3%)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연수 시노인장애인과장은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이 개원하면 치매노인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halla.com

농약없이 감자·당근·양파재배 성공

고품질 농산물 생산 ⇒ 하하농법이 최선이다

썰파고와 V패스로 농약없이 재배한 농가가 있어 동네 농업인들 사이 소문이 자자하다고

썰파고	·나노 유황으로 만든 320여가지 농약성분이 없으며 살균·살충 효과가 있다
V패스	·양자에너지와 히토류 생분해 복합제제로 세균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물의 회복과 면역력 증강으로 식물 구성세포의 복원을 촉진시킨다

당근 생산농가

구좌읍 세송로 김 정 애 (010-5036-1235)

양파 생산농가

대정읍 신도리 문 형 원 (010-2698-2476)

감자 생산농가

대정읍 상모리 박 성 국 (010-3030-0907)

브로콜리, 양배추, 무우, 마늘 등에도 좋은 효과가 나타나 기대가 됩니다 (초기 살충제 혼용)
농가에서는 농약값이 절반으로 줄어 하하 웃는 모습이 정말 좋아요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

진정한 제주축 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1포(100~500평) 사용

▶ 잡초의 경감

▶ 높은 저장성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N20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페르카

▶ 강력한 라이모효과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 뿌리혹병의 경감

취급 품목 아미노산, 휴믹산, 풀빅산, 해조박, 유황제품 (50~100)평 사용 100%발효 : 유박, 퇴비제품

관주염면 시비용 칼슘제, 색소, 당도, 뿌리발근, 생육촉진, 억제제, 광합성지원제품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면적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